

2018년 8월 25일, 제주시 이도2동 김채숙 씨 님, 이현정 조사.

김채숙(여, 1963년생, 제주시 이도2동)

- 경상북도 포항에서 출생, 6세에 제주도로 이주하여 외할머니와 외도동 근방에서 결혼 전까지 함께 지냈다. 결혼 후에는 이도1동에서 11년간 생활하다가, 이도2동에서 22년 동안 거주하고 있다.

- 줄거리: 어느 마을에 과년한 처녀와 총각이 살았다. 자식들이 걱정된 부모들은 동네 매패에게 두 사람의 중매를 부탁했다. 그런데 처녀는 총각의 더러운 이빨이 마음에 들지 않았고 총각은 처녀의 더러운 손목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매패는 이 사실을 전하며 둘이 따로 만날 수 있도록 약속을 잡았다. 처녀와 총각은 더러운 부위를 깨끗하게 씻고 약속에 나간 뒤, 은연 중에 더러웠던 부위가 지금은 깨끗하다는 사실을 손짓 발짓을 동원하며 보이려 애썼다. 노력 끝에 둘은 늦결혼을 하고 행복하게 살았다.

[조사자] 어릴 때 어른들신디 들어난 거 엇우과?

[제보자] 어느 마을에 친구들은 다 시집 장가 강 잘들 살고 잇인다. 어느 총각 하나하고 어느 처녀 하나가 시집 장가 못 간. 나이가 들언 어멍들이 인제 부모들이 걱정이 뉘연. 동네 중매할무니한테 어떻 아이네를 중매를 한번 서달렌 얘기를 헛인고라.

중매쟁이 할망이 처녀네 집에 강 이 처녀한테

“이 총각이 어떻냐?”

고 물어보난 처녀는 총각이 이빨이 시커멓히고 누렁히고 헨 말덴.

하고 총각네 집에 강 이 처녀가 어떻넨 물어보난 다른 건 다 괜찮은 디 손목이. 씻지를 안헛인지 때가 꼬작꼬작 꼬작인지 손목이 막 때 굿곡 뭐 영 행이네 말덴 곱아렌. 헨 이제 중매쟁이 할망이 둘 다한테 강

“영헤라, 정헤라. 영 곱아라, 정 곱아라.”

인제 얘기를 하난 어느 날 인제 둘이 곱이 만나게 헤 주젠이 할망이. 이젠 날 짜를 잡앙 만나게 헤 주젠 허난. 이제 만나기 전에 이 총각은 이빨을 진짜 깨끗

하게 닦아간다. 닦아온다 막 소금으로 문지르며 닦아실테주. 허고 이 처녀는 손
목을 인제 씻어간다. 씻어온다 행. 인제 둘이 만나게 뉘연.

인제 이빨은 보여줘야 뉘난. 이 총각은 이 처녀한테 강 혈 말이 엇이난

“너네 어멍 어디 갓이니?”

허멍 이빨을 영

“니-.”

허멍 이빨을 보여주난. 이빨이 아닌 게 아니라 깨끗하게 씻은 거라. 거난
이 처녀도 마음에 들고. 인제 처녀는 인제 손목을 보여줘야 뉘난. 총각한테

“게메이 동이 갓인가? 서이 갓인가? 어디 갓인가?”

허멍. 손을 휘저으며 손목을 보여주난. 손목도 깨끗하게 헤지난. 인젠 서로가 인
젠 몸에 들은 처녀 총각이 늦결혼행 아들, 딸 낳고 잘 살았다는 얘기를 옛날 외
할무니한테 들은 기억이 잇고.

옛날 얘기들은 좀자명 할무니 옆에서 많이 듣긴 헛주마는. 생각나는 거는 가물
가물 행 죄끔씩만 생각나.

내가 들은 얘기는 이게 그래도 제일 기억에 많이 남는 거 같앙 곱아 뵙우다.

• 핵심어: 처녀, 총각, 중매쟁이 이빨, 손목, 늦결혼